

Essay upon Epitaphs and British Burial Reform: Sanitation and Cultivating the Masses*

Ilhwan Yoon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essay captures and discusses the moment William Wordsworth opposes and resists the structure of subordination and domination in British burial reform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For the safe disposal of the dead, burial reformers idealize the upper-middle class sanitary ways of disposal, producing suitable and instructive moral effects through the cemetery. John Claudius Loudon puts into practice burial reformers' principles in his cemetery design and builds space that displays order, safety, security, and sanitary conditions. However, the rational distribution and hygienic imperative of his cemetery not only tame death and reduce it to socially amicable dimensions but also encompass and reinforce the moral and general sentiments of the ruling class. Unlike the burial reformers, Wordsworth in *Essays Upon Epitaphs* affirms and embraces the dead, while listening to their voices in the epitaph. For him, giving them a proper burial constitutes the ideal community. The community arising from the cemetery does not integrate into either the socially amiable aesthetic-moral values or ruling class ideology, as intended by burial reformers. While building rapport and a sense of communal identity through the grave and its epitaph, Wordsworth is keenly aware of the impossibility of eliminating the ghostly domain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He attempts to build the ideal community upon mourning and loss that, by binding together the dead and the living, does not allow affectation to stand in the place of affection.

Key Words: William Wordsworth, *Essay upon Epitaphs*, burial reform, John Claudius Loudon, cultivating the mass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5A2A01047398)

Copyright© 2022 ELLAK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묘지명 소고』와 영국묘지개혁: 위생과 대중 교화

윤 일 환

I. 서론: 영혼 불멸과 묘지의 역사적 변동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다른 공간들」(“Different Spaces”)에서 현실 속의 절대적 다른 장소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를 논의하면서, 역사 속에서 한 사회는 이전부터 계속 존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묘지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서구에서 영혼의 불멸을 믿었던 시대에는 성인, 왕, 귀족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시신(屍身)에 자연스럽고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다. 18세기 이전까지 서구 사회에서 묘지는 도시의 중심이나 교회의 옆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장소들에는 개인의 혼적조차 사라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시체 구덩이, 몇몇의 개인 무덤, 교회 안의 무덤 등 온갖 종류의 묘들이 있었다(“Different Spaces” 180). 18세기 이후 종교와 귀족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부르주아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소생과 영혼의 불멸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가 무신론적으로 변해가면서 사람들은 시신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죽은 자들에 대한 숭배가 점점 늘어갔다. 사람들은 시신을 개별적인 것으로 취급했고, 각자 자기만의 작은 상자에 담겨 개별적으로 썩어갈 권리를 요구했다(“Different Spaces” 181). 18·19세기 동안 산자와 죽은 자의 전통적인 친숙함과 공간적 친밀감은 거부되었고, “죽은 자의 오랜 이질성은 단호하게 죽은 자의 이질성은 산자 주변에서 제거되었다”(Brookes 7). 사람들은 죽은 자와의 인접성이 죽음 자체를 퍼뜨린다고 추정했고, 이에 따라 ‘질병’으로서의 죽음과 위생에 대한 강박관념이 생겨났다. 지배계층인 중·상류층은 전염병의 장소인 묘지를 마을의 바깥으로, 도시의 경계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죽은 자의 매장지를 교회의 봄비는 신성한 공간에서 도시 외곽의 새로운 공동 묘지로 옮김으로써, 질병을 퍼뜨리는 시신을 위생적으로 매장하고, 자신만을 위한 개별 묘지를 요청했다.

이 글은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묘지명 소고』(*Essay upon Epitaphs*)를 18·19세기 영국의 묘지개혁이라는 역사·사회적 맥락에 위치시키고, 묘지개혁의 담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위생, 권력 관계, 미적·도덕적 교화를 비판하는 워즈워스의 시학을 탐구한다. 그동안 비평가들은 『묘지명 소고』를 워즈워스의 시학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다층적인 의미와 스펙트럼을 포괄하려 묘지명이 애도자에게 일으키는 감정과 그러한 애도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언어에 역량을 집중했다. 비평가들의 해석은 대체적으로 초점을 애도의 감정에 두느냐 아니면 묘지명의 언어에 두느냐의 관점에 따라 두 군으로 나뉜다. 애도의 감정을 강조하는 비평가들은 워즈워스의 논의에서 주로 애도자와 죽은 자 간의 결속이 감정을 통해 발생하는 방식에 집중한다.¹ 반면 묘지명의 언어에 초점을 둔 비평가들은 대체적으로 죽음과 죽음의 재현 사이의 간극을 기의와 기표의 관계로 치환하여 접근한다.² 이 글은 그 동안의 선행 연구의 생산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면서도, 『묘지명 소고』를 묘지개혁이라는 역사·사회적 관점에서 새롭게 읽는다. 이러한 읽기를 통해 이 글은 워즈워스가 중·상류층의 이념을 사회 전체로 확산할 목적으로 묘지의 공간을 치밀하게 배치·격자화·질서화하는 전술을 거부하는 방식을 논의한다. 또한 삶과 죽음의 대립적 가치를 전복하고, 지배적인 정치사회 형태를 저항하고, 미적·도덕적 주체화를 거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 과정에서 워즈워스의 사유 궤적에서 죽음과 애도의 공동체가 차지하는 역사·사회적 반경을 그려낸다.

1 대표적으로 Kurt Fosso는 워즈워스가 어떻게 애도의 감정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 짓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가져오는지를 논의한다. 에스터 쇼어(Esther Schor)는 워즈워스가 독자로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죽음과 묘지명을 사용하는 방식을 다룬다. 드위 W. 홀(Dewey W. Hall)은 죽은 자에서 시적 자아의 반성적 이미지를 찾는 워즈워스를 그린다.

2 미셸 터너 샤프(Michele Turner Sharp)는 워즈워스가 묘지명을 통해 죽은 자를 기억하려 하지만 죽은 자를 재현하는 역설에 직면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린다 C. 브릭햄(Linda C. Brigham)은 퍼스 기호학의 지표(index)를 중심으로 워즈워스가 죽은 자를 지시하는 방식의 경제성을 다룬다. J. 더글러스 널(J. Douglas Kneale)은 묘지명에 자아가 텍스트적 형식을 부여하려 하지만 자아 자신은 텍스트 안에서 구현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한편 흥미로운 관점으로 출판 시장과 독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스콧 헤스(Scott Hess)와 황병훈이 있다.

II. 본론

2-1. 18세기 이후 증가하는 묘지개혁의 목소리

18세기 이후 영국에서 죽은 자를 무질서하게 매장하는 전통적인 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 갔다. 1721년 토마스 루이스(Thomas Lewis) 목사는 『교회와 교회 묘지에 매장하는 불경하고 위험한 관습에 대한 시의적절한 고려』(*Seasonable Considerations on the Indecent and Dangerous Custom of Burying in Churches and Church-yards*)라는 소책자에서 도시의 묘지와 교회 묘지를 도시 외곽과 시골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Curl, *The Victorian Celebration of Death* 39). 1794년 토마스 코건(Thomas Cogan)은 『라인강 또는 울트레치에서 프랑크포트까지』(*The Rhine: or from Ulretch to Francfort*)에서 얼마 전에 묻었던 어머니의 손가락을 발견하고 기겁을 한 어느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시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64). 한편 1838년 외과 의사이자 묘지개혁가인 조지 앨프레드 워커(George Alfred Walker)는 『묘지에서의 모임, 특히 런던의 경우』(*Gatherings from Graveyards, Particularly Those of London*)에서 마을 근처의 묘지에서 나오는 독기가 전염병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202). 이처럼 죽은 자의 시신을 보호하라는 요청은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걸쳐 일반적이었다. 인기잡지, 팜플렛, 심지어 1820년대까지 책에 실린 소고와 편지는 묘지의 과밀화를 비난하면서 악취가 나지 않는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 목소리는 일관되거나 공식화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매장개혁의 당위성이 커져갔다. 묘지개혁가들은 주택가 곁에, 교회 곁에, 거리 한가운데 등에 매장된 시신이 죽음과의 인접성으로 인해 죽음 자체를 퍼뜨리는 것으로 여겼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 또는 근접성을 단절하려 했다. 묘지개혁가들은 시신이 산 자에게 질병을 옮기기 때문에 매장지가 과밀화된 도시지역을 벗어나 묘지, 유골, 관을 도시의 경계나 마을의 바깥이나 시골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균학의 발전이 초기 단계였기에 묘지개혁가들은 세균이 아니라 시신에서 나오는 악취에서 질병의 원인을 잘못 찾았다. 그들은 빈민·노동계층의 묘지에서 주로 악취와 독기가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시신을 처분하는 이들 계층의 전통적인 방법을 비판했다. 당시 빈민·노동계층의 시신은 작은 구덩이에 여러 구가 함께 매장되었고,

적절한 처리 없이 방치됨으로써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독기를 풍겼다. 묘지개혁가들은 이러한 매장 방식을 비판하고, 시신을 개별적으로 매장하는 중·상류층의 위생적인 처리 방법을 이상화했다.

18세기와 19세기 초반 영국은 산업혁명의 소산으로 빈부의 격차가 극심했고, 노동자 계층은 빈곤과 열악한 환경으로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을 중심으로 1842년에 공중위생감독 및 각종 위생조사를 위한 보건정책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영국 근로자의 위생 상태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묘지개혁 담론의 기초를 마련했던 채드윅은 『대영제국의 노동 인구의 위생 상태에 대한 보고서: 도시의 장례 관행에 관한 특별 조사 결과에 대한 보충 보고서』(*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s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A Supplementary Report on the Practice of Internment in Towns*, 1843)에서 열악한 생활 수준과 질병의 확산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채드윅은 질병과 가난이라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손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질병에 대한 그의 치료법은 가난한 사람들의 더러운 생활환경과 나쁜 생활습관에서 발생하는 독기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채드윅은 정부가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방 의회가 집과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각 마을에 의료 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채드윅이 작성한 위생 보고서는 위생개혁의 중요성, 그리고 중앙과 지방의 일괄한 보건 행정기구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근거가 되어 세계 최초의 공중 보건법(Public Health Act, 1848)이 제정되었다.

채드윅의 보고서는 빈민층과 노동계층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시신을 처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시신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중·상류층의 방식을 이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 보고서는 빈민·노동계층들이 그동안 행했던 장례 관행과 불결한 묘지 환경을 개혁함으로써 보건행정의 틀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채드윅이 기대했던 최우선 목적은 정치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위생의 관점에서 죽음을 길들이고, 묘지를 건축화, 위계화, 질서화하여 영국의 중·상류층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 이러한 의도는 채드윅이 “과밀”(overcrowding)을 위생뿐만 아니라 도덕과 관련하여 정의할 때 암시된다. 그는 말한다. “과밀이 질병의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

는 일이다. 하지만 또한 과밀 때문에 극도의 풍기문란과 무분별이 생겨나고, 무분별이 또 다시 질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흔히 인지되는 일이다”(190). 채드윅은 과밀한 묘지의 불결이야말로 질병의 온상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빈민·노동계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좁은 공간에 시신을 함께 매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그는 시신을 겹쳐서 매장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하다고 비난하고 그로 인해 악취와 독기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채드윅은 중·상류층의 생활방식과 도덕관을 받아들여 실천할 때, 빈민·노동계층이 비위생적인 묘지와 독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처럼 그는 위생개혁과 묘지개혁을 인간의 통치기술의 하나로 보고, 도시계획, 보건, 대중 교화 등의 수단으로 삼았다. 채드윅은 중·상류층의 죽음과 빈민·노동계층의 죽음을 나누고, 묘지개혁에서 사회적 위계질서와 권력의 피라미드를 재생산하려 했다.

2-2. 루던의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캠브리지’: 공간의 위계적 분할

조경 설계자이자 공동묘지 설계자인 존 그라디우스 루던(John Claudius Loudon)은 『묘지 배치, 묘목 및 묘지 관리에 관하여』(*On the Laying Out, Planting, and Managing of Cemeteries*, 1843)에서 위생에 대한 채드윅의 생각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한다. 그는 묘지조성 과정에서 죽음을 격리하고 봉쇄하여, 중·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묘지와 매장 관행을 개혁하려 한다. 루던은 채드윅의 생각을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캠브리지’(Histon Road Cemetery, Cambridge)의 조성에서 실현한다. 이 묘지조성에 그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운다. “첫째, 시신이 부패하고 죽은 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산 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 의견 또는 편견에 충격을 줌으로써 산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신을 처리하는 것. 둘째, 모든 계층, 특히 일반 대중의 도덕적 감정과 일반 취향을 개선하는 것”(Loudon 1-2)이다.

루던은 묘지의 위생 상태를 개혁하고 빈민·노동계층을 교화하고 이들의 정치적 예측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공원묘지의 공간을 위계화하고 질서화한다.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캠브리지’의 설계에서 그가 묘지 공간을 분할하는 방식은 푸코가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에서 제시한 “분할의 기술”(the art of distributions)과 유사성을 지닌다(Driver 10-15). 푸코에 따르면, 18세기 서구 사회

는 신체의 경제적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규율하고 건축의 공간을 분할한다. 푸코가 분석한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은 특정한 필요, 문제 또는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4개의 “분할의 기술”—“폐쇄성”(enclosure), “공간의 재배치”(partitioning), “기능적 공간배치”(functional sites), “서열”(rank)—을 사용한다(*Discipline and Punish* 138). 이들 체제는 루던의 공동묘지와 개별 시신의 배치에서 어느 정도 실행된다.

규율 권력은 “분할의 기술”을 통해 건축적이면서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복합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Discipline and Punish* 141-49). “분할의 기술” 중에서 “폐쇄성”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기숙학교와 막사의 예처럼 거주지의 폐쇄는 질서와 통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Markus 101). “폐쇄성”의 방식과 유사하게 루던은 묘지에서 나오는 독기에서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 인구와 적절히 떨어져 있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를 설치한다. 나아가 그는 묘지의 둘레를 따라 나무를 심어 주거지와 묘지 사이에 단순하고 규칙적인 경계를 설정한다(Loudon 14).

푸코의 “공간의 재배치”는 기본적인 위치 결정의 원칙이나 분할방식의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자리를 정하고 지역마다 개인을 할당한다. 이 분할 방식은 “집단 단위의 구분을 없애고, 집단적 배치를 분해하며, 혼잡하고 밀집해 있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다수를 해부하도록 한다”(Discipline and Punish 143). 이 규율의 일차적 작용은 “혼란하고 쓸모없거나 위험한 다수를 질서 있는 다수로”(Discipline and Punish 148) 변환하는 방식의 확립이다. “공간의 재배치”의 방식처럼 루던은 사회 계층에 따라 묘지의 위치를 정하고 개별 묘지를 할당한다. 그는 중·상류층의 묘지를 중심으로 빈민·노동계층의 묘지를 분산 배치한다. 루던에게 공동묘지의 주요 목적은 죽은 자의 유해를 처리하는 것이지만, “산 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감정, 의견 또는 편견에 충격을 주어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Loudon 1-2)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채드윅, 워커 및 기타 묘지개혁가들을 지지하면서, 루던은 독기의 위협이 봄비는 묘지는 매장 간의 간격이 훨씬 더 넓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봄비는 공동묘지는 마을 인구에 가까웠기 때문에 위험했다고 여긴다. 채드윅의 지적처럼, 묘지는 독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기에 의해 희석될 수 있는 곳인 시골 지역이나 고지대에 위치해야 한다(Chadwick 30). 따라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묘지는 도시 인구로부터 적절한 거리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위치하고 더 깊게 매장되어야 했다.

한편 푸코의 “기능적 공간배치”는 군 이탈자, 전염, 상품 또는 시신 등을 통제하고 감독하기 위해 공간을 체계화하는 방식이다(*Discipline and Punish* 144). 수도원, 병원, 학교 및 교도소에서 발견되는 방과 침대를 제도적으로 구획하는 방식을 루던은 묘지 설계에 그대로 반영한다. 그는 오래된 매장지의 뒤죽박죽된 시신들을 기하학적으로 재배치한다. 그가 설계한 공원묘지는 “공간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처럼 형태와 선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Loudon 53) 직선형이어야 하고, “직사각형은 다른 직사각형의 배수 또는 약수”이어야 한다(Loudon 19). 묘지의 모든 특징은 “공간의 효율성처럼 형태와 선의 조화”를 위해 직선이어야 한다(Loudon 53).

푸코의 “서열”은 특정 격자 내에서 각 개인이 정확한 관계적 위치를 갖게 하는 분할 기술이다. 서열은 여러 신체를 한 곳에 뿌리박게 하지 않고 분배하여 하나의 관계망 속에서 결정된 순환 위치에 따라 신체를 개별화한다(*Discipline and Punish* 146). 서열의 예는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 학교의 정렬, 숙제나 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부과되는 서열, 연령순에 따른 학급의 배치, 난이도에 따라 학습 내용이나 논의 주제가 차별화하는 것 등이다. 푸코의 “서열” 방식처럼, 루던은 등록 및 지도서에서 각 묘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문자와 숫자를 사용한다. 그는 또한 “양 사이에 녹색 통로가 있는 2인용 묘지”(Loudon 22)를 선호하는데, 이는 정교하게 지도를 그릴 필요 없이 외관이 질서 정연하고, 접근이 쉽고,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던이 조성한 묘지의 공간은 다양한 효과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분리, 분할, 분산 및 표로 구분된다.

네 가지 분할의 기술을 사용하여 루던은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캠브리지’를 건축적이고 운영적 복잡 공간으로 창조한다. 그의 공동묘지는 벽, 건물, 소구역 등과 같은 실제 배치와 이상적인 이념의 투영을 포함하는 ‘혼합’ 공간이며, 특정 기능 및 신중한 계획을 통해 배열한 공간이다. 전반적으로 그가 창조한 공간은 분리, 분할, 분배 및 기하적인 형태로 배열된다. 현대 비평가들이 지적한 것처럼(Curl, *A Celebration of Death* 263) 루던의 ‘정원’ 공동묘지는 몇 가지 도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묘지 모두에서 도로는 환기를 촉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했다. 도시에서처럼 묘지에는 교회로 통하는 최소한 하나의 주요 도로가

있어야 하고, 모든 구획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 도로망이 있어야 한다. 배수구는 개별 묘지를 잠식하지 않도록 도로망을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구역 및 소구역의 체계적인 배열은 각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루던이 조성한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캠브리지’는 경계, 벽, 도로, 산책로 등의 배치를 관리하는 점에서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그러한 정비에 묘지에 매장된 개인에 따라 특징 명시, 평가, 위계질서를 투영한다는 점에서 관념적인 공간이다. 루던의 묘지는 질서정연하고 안전한 새 공간을 생성하고, 도시와 국가를 통합하려는 도시 외곽 기본 구상 내에서 조성된다.

2-3. 묘지개혁과 빈민·노동계층의 교화

루던의 ‘히스톤 로드 공동묘지—캠브리지’는 그 이면에 현실에 질서를 부여하고, 현실을 통제하고, 불결한 현실을 위생적이고 실용적이고 교육적으로 탈바꿈하려는 욕망을 숨기고 있다. 묘지를 기하학적으로 건축화, 위계화, 질서화함으로써, 루던은 격자화된 묘지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미적-도덕적 효과를 이끌어내려 한다. 그는 또한 현실의 변화를 통해 묘지를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 그는 묘지개혁을 통해 사람들이 자비의 덕목을 개발하고, 악을 추한 것으로, 덕을 사랑스러운 것으로, 이기심을 죄악으로, 애국심을 의무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루던의 묘지는 질병의 통제뿐만 아니라 일련의 미학적이고 도덕적 영향을 포괄하고 강화한다. “모든 계층, 특히 사회 대중의 도덕적인 감정, 일반 취향을 개선하기”(Loudon 1-2) 위해 그는 묘지가 인간 행위에 대한 양심과 감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루던은 공간의 가시적인 배열이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이미지와 연합된다는 ‘채드워의 원칙’을 실행한다(144). 제임스 A. 슈미첸(James A. Schmiechen)은 루던의 공동묘지의 계획이 데이빗 흄(David Hume)과 데이빗 하틀리(David Hartley)의 ‘연합주의’(associationism)의 미학적 원칙을 수용한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보는 대상과 그 대상이 기억에서 나타내는 가치 사이의 연합성 때문에, 정돈되고 경제적인 형식은 관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chmiechen 302). 루던은 묘지 공간의 규칙성과 대칭성이 감정과 행동에 명확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묘지를 통해 인간에게 적절하고 개선되고 유익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우선 공간은 경계벽과 도로와 산책로를 따라 매력

적인 기념물을 설치해야 한다. 주변 공간은 직사각형 형태로 분할하고 경계벽, 산책로, 비석, 나무 등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묘지를 대중의 도덕과 취향을 개선해야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또한 기둥처럼 나무와 비석은 방문객의 눈길을 죽음의 공간에서 벗어나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묘지 산책길은 땅을 판 흔적을 전혀 눈에 띄지 않게 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기적으로 잔디를 자르고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잘 관리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흡연, 음주, 식사, 뛰기, 뛰기, 휘파람 부는 소리, 노래, . . . 묘지 위 걷기”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Loudon 39). 루던의 이러한 묘지의 조성과 배치는 공간의 합리성 자체가 적절한 감성과 도덕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태와 반복의 동일성”(Loudon 85)은 묘지에 어울리는 “엄숙함”을 가져온다. 시골 노동자들처럼 묘지 방문객의 일부는 공간 배치와 묘지 건축양식의 세련됨을 감상할 감식력이 없지만, 묘지 정원을 거닐면서 “단순함과 단정함, 미각과 무취의 차이”(Loudon 74)를 인식할 수 있다. 엄숙함은 공간의 경제적 배치와 형태의 반복을 통해 발생한다. 공간 배열이 미학적-도덕적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관념에 따라 루던은 묘지의 중요한 2차 목표를 “모든 계층, 특히 사회의 대다수 대중의 도덕적 정서와 일반 취향”을 개선하는 것으로 삼는다(1-2).

루던에게 묘지는 지식, 취향 및 적절한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이상적인 장소이다. 그는 묘지가 ‘역사, 연대기 및 전기’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노동자의 ‘도서관’이 되기를 바란다. 묘지의 산책길을 거니는 것은 지역 역사를 훑어보는 것과 같다. 묘지는 빈자에게 “지역에 대한 역사와 전기의 역할”(Loudon 13)을 한다. 루던이 상상한 것처럼 빈민과 노동자는 묘지명을 읽으면서, 지역 역사를 배우고, 반복되는 직사각형의 묘지 형태를 바라보고, 엄숙함을 배울 수 있다. 묘지는 학습 도구이자 지역 역사에 대한 기억과 연속성을 떠올리게 한다(Hallam and Hockey 8-9). 과밀한 묘지가 드러내는 끔찍한 현실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위생적이고, 실용적이고, 교육적이고, 다기능적인 공간의 배치를 통해 지워진다.

그런데 루던이 꿈꾸었던 묘지의 미적-도덕적 기능의 이면에는 죽은 자를 계층화하고, 중·상류층의 미적-도덕적 우월성을 확인하고, 그 우월성을 빈민·노동계층으로 전파하려는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 루던의 묘지개혁은 중·상류층의 묘지와 빈민·노동계층의 묘지를 분할하는 위계적인 차별을 설정한다. 빈자들이 배우는 역사는 본질적으로 계층 관계의 역사이다. 묘지의 각 구조물이 방문객에게 충분한 효과

를 내기 위해, 루던은 빈자의 묘지를 넓은 공원묘지의 이곳저곳으로 분산시킨다. 이 분산으로 중·상류층의 비석은 하류층의 작은 묘지 위로 솟아 보이게 된다. 묘지의 중심을 차지하는 중·상류층의 비석은 그들의 미적·도덕적 우월을 상징하게 된다. 비석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빈민이나 노동자가 아니다. 세워진 비석만이 읽힐 것이고, 빈자의 경우처럼 비석이나 묘지명이 없는 묘지는 지역의 역사에서 제외될 것이다. 루던이 조성한 묘지는 분명 전통적인 매장관행이 지닌 과밀화, 악취, 비위생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을 개선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타자를 식별하고 배제한다. 묘지는 시신과 매장 관행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통제하고, 가족을 지도하고, 계층을 관리하고, 정신을 수양하는 기능을 지닌다. 루던은 묘지 전체의 미적·도덕적 가치를 드높인다는 미명하에 사회의 권력 관계를 죽은 자들의 묘지로까지 확대한다. 그가 설계한 묘지는 계층 관계를 재생산한다.

2-4. 『묘지명 소고』: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통합

루던으로 대표되는 묘지개혁가들은 묘지의 위계적 분할을 통해 빈민·노동계층에게 중·상류층의 위생 개념과 미적·도덕적 가치를 강제하고, 그 가치에 따라 권력 관계를 재생산한다. 또한 빈민·노동계층을 교화하려는 목적으로 묘지개혁가들은 어떤 삶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이 가치가 없는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삶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중·상류층의 통치이념으로 모든 계층을 통합하려 한다. 이렇게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는 중·상류층의 통치의 이념에 미달되는 빈민·노동계층을 그 내부에서 주변화한다.

묘지개혁가들은 산 자에게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고인을 추모하려는 열망과 동일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뼈가 흩어져 있는 묘지에서 애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땅 위에서 나뉘는 것을 없애기 위해 분투했다. 추모는 묘지에서 죽음의 흔적을 최대한 지울 때, 그리고 산 자에게 자신도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때 시작된다. 묘지는 시신의 부패와 그 부패에서 연상되는 죽음을 숨기고, 감성적이지 미화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묘지개혁가들은 묘지의 배열에 단순한 형태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의 이미지를 규격화하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루던은 공간의 배열이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건물, 가구 또는 정원의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조성되는 질서 있는 배열, 규칙적인 특징, 대칭 [또는] 수단에 마음이 익숙해지는 단순한 상황 등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질서는 모든 도덕의 기본 원칙이다. 왜냐하면 부도덕은 문명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기 때문이다.

[T]he mere circumstance of familiarizing the mind with orderly arrangements, regular features, symmetry [or] means adapted to the end in view, either in building, in furniture, or in gardens, must have an influence on conduct. Order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all morals: for what is immorality but a disturbance of the order of civilized society. (Loudon 1833: 94)

이 인용문은 루던이 노동자 주택의 디자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만, 디자인의 바탕이 되는 미학적-도덕적 원칙은 루던의 묘지조성 계획에 그대로 적용된다. 묘지개혁가들은 엄격한 질서, 규칙, 대칭을 기반으로, 묘지를 분할하고 구획하여, 죽음과 시신의 부패를 숨기려 한다. 그들이 묘지를 질서화하려는 욕망은 묘지에 매장된 시신과 죽음을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묘지개혁가들에게 고인에 대한 애도는 죽은 자와의 근접성보다는 거리감에, 그리고 묘지의 외관과 주변 환경에 달려 있다. 죽음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분할된 묘지로 대치되고 부정된다. 묘지는 도시 계획의 일부에 속하면서 더 이상 마을의 신성하고 불멸하는 기운을 지닌 장소가 아니게 된다.

묘지개혁가들은 중·상류층의 위생 담론으로 빈민·노동계층을 관리하고, 통치 이념에 따라 빈민·노동계층을 교화하고, 죽음을 삶의 영역에서 배제하려 한다. 위즈워스는 묘지개혁가들이 위생과 교화로 덧씌운 빈민·노동계층의 거짓 이미지를 지워내고, 죽음 앞에 모두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생각을 부각시키려 한다. 묘지개혁가들이 빈민·노동계층을 중·상류층의 통치 이념으로 전유하고 포섭하려 한다면, 위즈워스는 사자의 기억과 애도 속에서 모든 계층들이 차별 없이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류할 것을 요구한다.

묘지개혁가들은 사물을 위계적으로 분리하고 분할하고 분배하고 기하적인 형태로 배열하여, 위생적이고 도덕적이고 미적인 묘지를 조성하려 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죽음을 삶과 엄격하게 분리하고, 죽음을 직사각형의 형태로 전환하려 한다. 묘지개혁가들의 생각과 달리, 삶과 죽음의 경계 긋기는 위즈워스가 소중하게 여긴

자연의 본성에 위배된다. 위즈워스에 따르면, 자연은 우리에게 “형식성과 엄격한 대조”가 아니라 “형식의 풍부한 다양성”을 통해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가져다준다. 한 곳에서 사물이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부활하는 자연의 질서처럼, 그는 삶과 죽음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거부한다. 위즈워스가 삶과 죽음의 명확한 분리와 분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1810년에 출판한 『호반 지방 여행안내서』(*A Guide through the District of the Lakes*)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시골 풍경을 개량한다는 미명하에 “인공적인 외관이 전면적으로 부가되고, 미세한 아름다움이 가져오는 무한한 다양성은 파괴되었다”고 한탄한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역겨운 위반은 의심에 여지없이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럽고 명예로운 느낌에서, 즉 독특한 관념과 질서, 규칙성, 장치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받는 쾌감에서 비롯된다. 이제 경험이 부족한 마음은 견고한 경계선으로 서로 분리된 대상에서만 이러한 인상을 받는다. 따라서 마음은 형식화와 거친 대조에 기꺼이 매료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만족을 가져줄 수단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주의 깊게 연구하기를 간청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이 그토록 아낌없이 부여한 시골에서 정확하면서도 풍부하고 다양한 형태가 욕망을 만족시킬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이 [엄격한 경계 짓기]와 대립하여 새로운 쾌락 습관이 형성될 것인데, 이러한 쾌락 습관은 미세한 변화를 지각하는 것에서 생겨난다. 자연에서 한 사물은 다른 것으로 미세하게 변하고, 개별성을 구성하는 경계들은 한 순간에 사라졌다 더 매력적인 형태로 다른 곳에서 소생한다.

All gross transgressions of this kind originate, doubtless, in a feeling natural and honourable to the human mind, viz. the pleasure which it receives from distinct ideas, and from the perception of order, regularity, and contrivance. Now, unpractised minds receive these impressions only from objects that are divided from each other by strong lines of demarcation; hence the delight with which such minds are smitten by formality and harsh contrast. But I would beg of those who are eager to create the means of such gratification, first carefully to study what already exists; and they will find, in a country so lavishly gifted by nature, an abundant variety of forms marked out with a precision that will satisfy their desires. Moreover, a new habit of pleasure will be formed opposite to this, arising out of the perception of the fine

gradations by which in nature one thing passes away into another, and the boundaries that constitute individuality disappear in one instance only to be revived elsewhere under a more alluring form. (Wordsworth 210)

시골 풍경의 훼손에 대한 워즈워스의 논평은 윈디머어(Windemere) 호숫가를 따라 언덕을 가꾸거나 제방을 건설하려는 사람들만큼이나 묘지를 규격화하려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워즈워스가 사람들이 실제로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시골 풍경을 훼손하려는 욕망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묘지개혁가들의 작업을 염두에 두고 읽을 때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명된다. 자연경관을 재정비하려는 이러한 노력에서 워즈워스는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감지한다. 그는 묘지를 규격화하는 묘지개혁가를 비판하면서 삶과 죽음의 유동적 경계를 강조한다. 죽음과 삶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모두 거부한다. 죽음을 삶에서 떼어놓으려는 묘지개혁의 이념과 워즈워스의 시학이 기반 하는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교류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다르다.

『호반 지방 여행안내서』와 같은 해인 1810년 2월에 출판된 『묘지명 소고』(*Essay upon Epitaphs*)는 흔히 매장 관행보다는 워즈워스의 시학에 대한 논평으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18·19세기의 묘지개혁이라는 역사·사회적 맥락과 관련할 때, 이 글은 워즈워스가 묘지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읽기의 타당성은 이 글이 출판된 지 7년 후 조셉 스노(Joseph Snow)가 워즈워스의 허가를 받아 이 『소고』를 자신의 묘지명 모음집인 『추억의 리라: 독창적인 묘지명과 교회 묘지에 관한 시』(*Lyra Memorialis: original Epitaphs and Churchyard Thoughts in Verse*)에서 첫 장에 배치한다는 사실에서 명확해진다. 스노는 서문에서 자신의 모음집이 “개신교 교회의 묘지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n.p). 한편 1856년 오거스터스 헤어(Augustus Hare)는 비슷한 묘지명 모음집인 『시골 교회 묘지를 위한 묘지명』(*Epitaphs for Country Churchyards*)의 서문에서 워즈워스의 『묘지명 소고』의 일부 구절—“묘지명은 면학가에게만 한정된 오만한 글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 . . 그것은 모두와 관련되고 모두를 위한 것이다”(Wordsworth 59)—를 인용하면서, 묘지명 모음집의 교화적 의미를 강조한다(n.p). 스노와 헤어가 묘지개혁이나 교화의 목적으로 『묘지명 소고』를 인용을 한다는 사실은 18·19세기 묘지개혁가들이 워즈워스의 『묘지명 소고』에서

묘지개혁과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것은 또한 이 글을 묘지개혁이라는 역사적 맥락 내로 위치시킬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된다.

워즈워스는 『묘지명 소고』에서 묘지명의 역사에 대해 개괄하면서 묘지명의 구성요소와 규칙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 『소고』에서 워즈워스는 매장 관습에 두 가지 욕구가 있음을 확인한다. “하나는 죽은 자의 유해가 외부에 무례하게 노출되어 야만스럽게 훼손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를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였다”(Wordsworth 49). 시신 보존과 고인의 추억에 대한 인간의 기본 소망은 모든 민족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 매장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원시사회에서도 죽은 자들이 매장된 곳을 표시하기 위해 묘지를 막대기와 바위로 표시하였다. 문자의 발달로 묘지명은 죽은 자를 추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된다. 묘지명은 비석에 새겨진 글자로 죽은 자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수단이 된다.

워즈워스는 죽은 자에 대한 존중과 추모가 우리 본성이 불멸하다는 점에 기초한다고 본다.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친구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자신을 욕망을 일깨울 수 없을 것이다”(Wordsworth 50). 우리 안에 불멸에 대한 암시나 확신이 없다면, 죽은 후에 친구나 친척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묘지명은 사후에도 삶을 영속시키려는 “불멸”에 대한 “인간적” 욕구를 표현한다. 묘지명을 읽는 이들은 모두 산 자의 기억 속에 죽은 자가 계속 살아 있는 것을 상상한다. 브래들리 드퓨(Bradley Depew)의 말처럼, “타인과의 어울림과 함께 불멸의 의식으로 인해, 우리는 죽음을 내다볼 수 있고 죽음 이후 내 존재의 일부가 살아남을 것이라 예견하여, 결국 우리의 죽음 이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기억해주기를 소망하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968-69). 우리 내면에 불멸의 확신이 없다면, 사후에 친구나 친지들이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적절한 묘지와 장례를 기대하는 관행은 없을 것이다. 불멸의 의식은 우리가 죽은 후에 동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흔적을 남기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묘지명은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대신하여 내가 기억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묘지명은 산 자와 죽은 자의 두 세계를 조화시키고 통합시켜, 산 자를 위로하고 고인을 칭송하는 이중 목적을 달성한다. 죽은 자의 삶은 산 자의 기억 속에서 생존하며, 산 자는 죽은 자와 공감하고 그를 추모한다. 하지만 묘지명은 또한 산 자에게 자신이 필멸의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 “멈추시오, 지나가는 이여!”라고 말을

거는 묘지명은 산 자에게 자신의 죽음이 언제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묘지명 앞에 선 자는 죽은 자의 삶과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죽음도 애도하게 된다(de Man 78). 묘지명은 산 자에게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깨닫게 한다. 그것은 산 자가 불완전할지라도 죽은 자의 짝패로 스스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위즈워스의 묘지명 담론에 내포된 것은 산 자를 죽은 자에게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데브라 프리트(Debra Fried)의 주장처럼, “나[죽은 자]를 기억하라”는 “나를 재차 경험하라”를 의미한다(617). 산 자는 고인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대체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과 인생의 짧음을 생각한다. 위즈워스는 인생의 짧음을 예시하기 위해 교회마당 외진 곳에 독미나리와 썩기폴로 반쯤 뒤덮인 작은 돌에 새겨진 묘지명을 언급하는데, 그곳에는 하루를 살다 죽은 아이의 출생과 사망 날짜, 그리고 이름만이 적혀 있다.

나는 독자가 이 묘지에 대하여 나와 어느 정도 공감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아이가 누렸을 권리와 자각했을 소망과 기억이 자취를 감추거나 사라졌다는 생각들 때문에, 내가 어느 묘지명을 우연히 마주했던 어떤 경우보다도 그 글귀로 인해 큰 슬픔을 느꼈다.

I know not how far the Reader may be in sympathy with me, but more awful thoughts of rights conferred, of hopes awakened, of remembrances stealing away or vanishing were imparted to my mind by that inscription there before my eyes than by any other that it has ever been my lot to meet with upon a Tombstone. (93)

위즈워스에게 묘지명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쓸 수 있는 지,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인생의 짧음을 깨닫는지를 알려준다. 그것은 “죽음이 만들어내는 빈 공간을 채우고 보충하거나 메우는 기능을 한다”(Hall 658). 묘지명이 애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쇠퇴와 보존, 부재와 현존이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묘지명은 묘지의 위치를 표시하고, 애도를 불러일으키고, 시신과 묘지석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운다. 묘지명은 죽은 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을 삶으로, 혹은 삶을 죽음으로 바꾸지 않고 죽음과 삶 간의 ‘실제적’ 차이를 드러낸다. 위즈워스는 죽음을 지우지도, 삶을 죽음의 심연으로 밀어 넣지도 않는다. 죽은 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산 자에게 필멸의 운명을 인

식하게 함으로써 워즈워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변적으로 여긴다. 워즈워스에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산 자가 죽은 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2-5. 묘지명과 애도의 공동체

묘지개혁은 죽음의 흔적을 지우고 죽음의 이미지를 규정화하여, 아름다운 죽음의 이미지를 조성하려는 목적과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시신의 부패를 숨기고 싶은 묘지개혁의 욕망은, 유족의 감정과 슬픔을 좀 더 단호하게 제한하고 싶은 욕망과 일치한다. 묘지개혁가들은 죽음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전환한다. 묘지개혁은 유족의 감정과 슬픔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이 묘지개혁을 통해 조성하고자 하는 감정은 규격화된 감정이다.

워즈워스는 “진지한 애도자”(Wordsworth 66)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묘지와 묘지명의 기능이 고인에 대한 추모임을 명확히 한다. 묘지명의 본래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그는 묘지개혁가들의 작업에 내재된 모순을 드러낸다. “경험이 풍부하고 마음을 잘 통제하는” 사람의 경우, 묘지명을 읽음으로써 장식적인 덮개를 벗기고 단어가 전달하는 애도의 감정을 경험할 것이다. 그 감정을 길들이고 억제하려는 묘지개혁가들의 욕망에 반대하면서, 워즈워스는 감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재구성하여 과거의 슬픔을 현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상대편이 자신과 공감하기를 원하는 저자는, 어느 경우보다 이 경우에, 그 자신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Wordsworth 59). 조셉 스노(Joseph Snow), 오거스터스 헤어(Augustus Hare),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시한 묘지명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워즈워스는 기성 묘지명이 추모의 느낌이 아닌 형태만을 강조하고, 꾸밈이 사랑을 대신한다고 비판한다.

진지하지 못하고, 어떤 배역을 행하고 감동할 한가로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힘을 행사하는 결점은 없다. . . . 그리고 실제로, 작가가 감동되었다는 사실이 내면에서 입증되는 경우, 달리 말하자면, 진지함이 주는 매력이 묘지명의 언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비밀리 묘지명에 스며들 경우, 문체나 표현방식에 어떤 오류도 없을 것이다.

[N]o faults have such a killing power as those which prove that he is not in earnest, that he is acting a part, has leisure for affectation. . . . And indeed, where the internal evidence proves that the Writer was moved, in other words, where this charm of sincerity lurks in the language of a Tombstone and secretly pervades it, there are no errors in style or manner. (70)

묘지개혁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규격화된 감정으로 진정한 감정을 대체한다면, 묘지의 본래 목적은 훼손될 것이다. 고인과의 공감과 진지한 애도와 감정은 추모의 출발점이다. 슬픔과 추모는 은폐되고 숨길 것이 아니며 교회의 대상도 아니다. 나쁜 시처럼 나쁜 묘지명은 올바른 감성을 불러내지 못하고 잘못된 취향과 판단을 가져올 것이다.

18세기 후반 영국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변모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는 상황에서 워즈워스는 죽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옹호한다. 마을 주민은 조상들과 상상적 공존으로 얽혀있다. 시골 교회 묘지는 정서적, 영적 및 문화적 공동 기반을 지닌다. 삶에 만연한 실제의 불평등과 관계없이, 묘지는 “모든 인간이 그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며, 높은 자와 낮은 자를 평등하게 한다”(Wordsworth 59). 타인의 죽음에서 생성되는 공동체는 죽음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며, 타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민과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정체성은 죽음에 대한 애도에 기반 한다. 매장 관행과 묘지명을 통해 공동체는 깊고 수평적인 동지애로 연결된다.

워즈워스는 시골의 교회 묘지를 삶과 죽음, 산 자와 죽은 자를 묶는 일종의 이상화된 공동체로 본다. 그곳은 산 자가 죽은 자와의 관계를 맺게 하는 탁월한 장소이다. “시골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교회 묘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공동체의 중심지”(Wordsworth 56)이다. 그곳은 묘지와 교회를 결합하고, 죽음과 불멸을 매개한다. 그곳은 방문객들이 자신의 궁극적인 영적 목적지를 깨닫고, 산 자의 슬픔과 죽은 자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고, 시간과 영원을 명상할 수 있는 이상의 공간이다. 그곳은 죽은 자를 적절한 장소에 묻고 산 자와 죽은 자의 공존이 허락되는 곳이다. 이런 이유에서, 워즈워스는 시골 교회 묘지를 공동체의 핵심으로 보편화한다.

시골 교회 묘지는 “죽은 자의 가치와 산 자의 애정에서 태어난 곳”(Wordsworth 58)이다. 그곳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고인이 된 친구 및 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과 신성함을 가져다준다(Wordsworth 65).

워즈워스는 “자연의 품에 누워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시골의 교회 묘지를 선호한다. 그곳에서 죽은 자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예배 장소와 연결되어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매장된다. 워즈워스는 여러 색채가 있는 시골의 교회 묘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시골에서 안식일을 기념하는 일에 뒤따르는 신앙심과 결합된 경쾌함의 감정들은 유익하게도 친지나 친구들의 묘지를 바라봄으로 스스로를 꾸짖게 하고, 사려 깊지만 행복한 관찰자들이 여정의 발길을 향하고 있는 그 모두의 집에서 모이게 한다. 시골의 정적 속에 자리 잡은 교구-교회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의 가시적인 구심체이다. 습관처럼 산 자와 죽은 자는 그들의 가장 친밀한 관심사를 그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The sensations of pious cheerfulness, which attend the celebration of the Sabbath-day in rural places, are profitably chastised by the sight of the graves of kindred and friends, gathered together in that general home towards which the thoughtful yet happy spectators themselves are journeying. Hence a parish-church, in the stillness of the country, is a visible centre of a community of the living and the dead; a point to which are habitually referred the nearest concerns of both. (55-56)

시골의 교회 묘지는 묘지와 예배 장소를 결합하고 죽음과 상실을 증재한다. 그곳에서 묘지를 방문하는 자는 개인적 슬픔이나 사회적 슬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명상하고 현세와 영원을 경배할 것이다. 교회 묘지는 죽은 자를 적절한 매장 관례와 함께 안치하는 적절한 장소이다. 그곳에서 죽은 자는 산 자와 함께 산 자의 세계에서 완전한 현존도 부재도 아닌 모습으로 존재한다.

시골 공동체 내에서의 매장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교류를 효과적으로 촉진한다. 이러한 애착의 감정은 시신이 적절한 매장 장소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에서 비롯된다. “우골이 조상 옆에서 안식해야 한다는 모든 사람의 욕구는 여전히 강력하고 지울 수 없다. 매우 가난한 사람도 죽은 후 육신이 마지막 만족을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마차에 실려 먼 거리까지 운반되어야 한다”(Wordsworth 65). 개인은 조상과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최후의 만족을 얻으려면 먼 곳까지 가야 한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은 개인들 사이에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감정적 연결을 형성한다. 미셸 터너 샵(Michele Turner Sharp)의 지적처럼, “죽은 자가 시골 공동체에 적절하게 속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소에 죽은 자를 묻고 적절한 장례를 치르는 것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시골 공동체를 지각하고 공감하게 된다”(391).

시골 교회 묘지로 이상화된 워즈워스의 공동체는 묘지에 매장된 친구와 친지와 조상의 죽음을 기초로 형성된다. 고인을 애도하는 자는 비통함을 통해 자신과 죽은 자와의 결속을 다지고, 자신과 지역민들과도 유대를 강화한다. 공동체는 내가 중심으로 되는 공간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과 관계하면서 형성된다. 공동체가 타인의 죽음을 기초로 형성된다면, 그 이유는 타인의 죽음을 마주하면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워즈워스의 지적처럼, 우리는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 유한한 존재들이고 그 유한성을 토대로 죽은 자와 소통하고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묘지에서 직면하는 타자의 죽음은 우리가 삶과 분리하여 억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애도하고 추모하고 기억하게 하는 힘임을 일깨워준다. 묘지에서의 감정이나 추모는 묘지개혁가들이 의도한 것처럼 이미 정해진 상위의 미적-도덕적 가치나 중·상류층의 통치이념 안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매번 새롭게 묘지 앞에서 만나는 타인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애도의 공동체에 기반 한다. 워즈워스가 『묘지명 소고』에서 꿈꾸는 공동체는 타인의 죽음을 산자의 기억 속에서 추모하는 가운데, 혹은 죽음과 삶 사이에 벌어진 틈과 마주하며 죽은 자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상상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III. 결론: 묘지개혁에 도사린 위생과 미적-도덕적 교화에 대한 워즈워스의 비판

『묘지명 소고』는 흔히 워즈워스의 시학과 관련하여 논평된다. 하지만 18·19세기 영국의 묘지개혁이라는 역사·사회적 맥락에 자리 잡을 때, 당대 묘지개혁의 담론 이면에 숨겨져 있는 위생, 권력 관계, 미적-도덕적 교화를 비판하는 워즈워스를

발견할 수 있다. 묘지개혁가인 루던은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묘지를 공간 분할이라는 기능적 효과에 입각하여 설계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죽음의 이미지를 부정하고 길들인다. 또한 일반 대중의 도덕적 감정과 일반 취향을 개선한다는 목적에 따라 묘지를 건축적이면서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루던은 또한 묘지조성 과정에서 중·상류층의 위생과 미적-도덕적 규범을 공간화하여, 빈민·노동계층이 중·상류층의 규범에 적응하게 만들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주변화 한다. 루던과 같은 묘지개혁가들이 위생과 도덕적 교화를 목적으로 묘지에서 죽음의 이미지를 분리하려 한다면, 워즈워스는 묘지 앞에서 죽은 자의 목소리를 자신의 목소리로 상상하고, 죽은 자의 삶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되살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죽은 자를 경외하는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삶과 죽음, 개인과 공동체 간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힘들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포용한다. 묘지의 본질적인 목적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임을 강조하면서, 워즈워스는 삶과 죽음 간의 명확한 경계를 지우며, 빈민층과 노동계층에게 부가하는 중·상류층의 미적-도덕적 주체화 방식을 거부한다. 그에게 묘지는 죽음의 억압과 위생개혁이 구현되어야 할 곳이 아니라, 애도의 부채로 산 자와 죽은 자가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곳이다. 궁극적으로 『묘지명 소고』에서 워즈워스가 비판하는 것은 묘지개혁의 이면에 숨겨진 중·상류층의 통치이념, 즉 죽음의 이미지를 길들이고, 개인과 계층을 위계화하고, 빈민·노동계층을 교화하려는 예속과 지배의 구조이다.

<한 양 대>

주제어: 윌리엄 워즈워스, 『묘지명 소고』, 묘지개혁, 존 클라우디우스 루던, 대중 교화

Works Cited

- Brigham, Linda C. "Frail Memorials: 'Essay upon Epitaphs' and Wordsworth's Economy of Reference." *Philosophy and Literature* 16.1 (1992): 15-31. Print.
- Brooks, Chris. *Mortal Remains: The History and Present State of the Victorian and Edwardian Cemetery*. Exeter: Wheaton, 1989. Print.
- Chadwick, Edwin.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s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A Supplementary Report on the Practice of Internment in Towns*. 1843. Rpt. Edinburgh: Edinburgh UP, 1965. Print.
- Cogan, Thomas. *The Rhine: or from Ulretch to Francfort*. London: 1794. Rpt. Ile-de-France: Ulan, 2012. Print.
- Curl, James Stevens. *A Celebration of Death*. London: B. T. Batsford, 1993. Print.
- _____. *The Victorian Celebration of Death*. Newton Abott: David and Charles, 1972. Print.
- Depew, Bradley. "Wordsworth on Epitaph: Language, Genre, Mortality." *ELH* 79 (2012): 963-88. Print.
- Driver, Felix. (1988) "Moral Geographies: Social Science and the Urban Environment in Mid-Nineteenth Century Eng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3.3 (1988): 275-87. Print.
- Fosso, Kurt. *Buried Communities: Wordsworth and the Bonds of Mourning*. New York: SUNY P, 2004. Print.
- Foucault, Michel. "Different Spaces." *Aesthetics, Method, and Epistemology: Essential Works of Foucault*. Ed. J. D. Faubion. Vol 2. London: Penguin, 1988. 175-85. Print.
- _____. *Discipline and Punish*. London: Allen Lane, 1977. Print.
- Fried, Debra. "Repetition, Refrain, and Epitaph." *ELH* 53: 3 (1986): 615-32. Print.
- Hall, Dewey W. "Signs of the Dead: Epitaphs, Inscriptions, and the Discourse of the Self." *ELH* 68 (2001): 655-77. Print.
- Hallam, Elizabeth & Jenny Hockey. *Death, Memory and Material Culture*. Oxford: Berg, 2001. Print.
- Hare, Augustus J. C. *Epitaphs for Country Churchyards*. Oxford: 1856. Rpt. Whitefish: Kessinger Publishing, 2010. Print.
- Hwang, Byeong Hoon. "Wordsworthian Self-Reflection through Epitaph as a Text." *English & American Cultural Studies* 2.3 (2012): 299-320. Print.
[황병훈. 「텍스트로서의 비문을 통한 워즈워스의 자기 투영」. 『영미문화』 12.3 (2012): 299-320.]

- Hess, Scott. "Wordsworth's Epitaphic Poetics and the Print Market." *Studies in Romanticism*. 50.1 (2011): 55-78. Print.
- Kneale, Douglas, J. *Monumental Writing: Aspects of Rhetoric in Wordsworth's Writing*. Lincoln: U of Nebraska P, 1988. Print.
- Loudon, John Claudius. *On the Laying Out, Planting, and Managing of Cemeteries; and on the Improvement of Churchyards*. London: Longman, 1843. Rpt. Redhill: Surrey Ivelet Books, 1981. Print.
- Markus, Thomas A. *Buildings and Power*. London: Routledge, 1993. Print.
- Schor, Esther. *Bearing the Dead: The British Culture of Mourning from the Enlightenment to Victoria*. Princeton: Princeton UP, 1994. Print.
- Sharp, Michele Turner. "The Churchyard among the Wordsworthian Mountains: Mapping the Common Ground of Death and the Reconfiguration of Romantic Community." *ELH* 62: 2 (1995): 387-407. Print.
- Snow, Joseph. *Lyra Memorialis: Original Epitaphs and Churchyard Thoughts in Verse with an Essay by William Wordsworth. New edition Remodelled and Enlarged*. London: George Bell, 1847. Print.
- Walker, George Alfred. *Gatherings from Graveyards, Particularly Those of London, with a Concise History of the Modes of Interment among Different Nations from the Earliest Periods, and a Detail of Dangerous and Fatal Results Produced by the Unwise and Revolting Custom of Inhuming the Dead in the Midst of the Living*. London: Longman, 1838. Print.
- Wordsworth, William. *Aesthetical and Literary. The Prose Works of William Wordsworth*. Vol. 2. Eds. W. J. B. Owen and Jane Worthington Smyser. New York: Oxford UP, 1974. Print. 3 vols.

Notes on Contributor:

Ilhwan Yoon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Hanyang University. His primary research field is Romantic and Modern poetry.

Email: ilhwan_y@hanyang.ac.kr

Received: August 20, 2022.

Reviewed: November 18, 2022.

Accepted: November 27, 2022.